

국가별 동향



미 국

계란 하루 1개, 뇌졸중 위험 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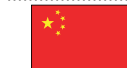
계란 섭취가 관상동맥 질환(심장병)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뇌졸중 위험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 세계에 역학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에피스테트 연구소(EpiStat Institute)의 도미니크 알렉산더 박사 연구팀이 1982년에서 2015년까지 33년 동안 계란과 심장병, 뇌졸중 사이의 연관성을 다룬 역학연구 논문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 등이 보도했다. 계란과 심장병 연구에는 총 27만6천 명, 계란과 뇌졸중 연구에는 총 30만8천 명이 참가했다. 전체적인 분석결과는 계란을 매일 1개씩 섭취했을 때 심장병 위험은 커지지 않고 뇌졸중 위험은 12%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렉산더 박사는 밝혔다. 계란 섭취로 뇌졸중 위험이 낮아지는 이유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계란에는 산화스트레스와 염증을 진정시키는 항산화 성분을 포함, 많은 이로운 영양소들이 들어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치킨 상자 열어보니 음식 대신 현금 552만원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의 한 무선인터넷 매장에서 일하는 셀레나 아발로스 씨는 점심으로



인근 도미노피자에서 치킨 wings를 주문했다. 그런데 배달된 음식의 상자를 열어본 셀레나 씨는 깜짝 놀랐다. 치킨 wing 대신 100달러 짜리 현금 뭉치가 있었던 것이다. 그녀에게 배달된 지폐는 무려 5,000달러(약 552만원). 뽐뽐 포장된 모습에 처음에는 브래드 스틱이 잘못 배달된 줄 알았다. 셀레나 씨는 주문한 업체에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고민하던 그녀는 지역 방송국 ABC7뉴스에 도움을 요청해 연락이 닿을 수 있었다. 현금 다발은 고스란히 주인에게 돌아갔다. 도미노피자 측은 셀레나 씨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그녀와 무선인터넷 매장 동료들에게 1년 무료 피자 식사권을 줬다. 거금의 돈다발이 왜 피자 상자에 배달됐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도미노피자의 이런 배달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마찬가지로 치킨 wings를 주문한 마이크 베거스 씨 역시 음식 대신 현금 다발을 받아 업체 측에 돌려줬다. [파이낸셜뉴스]



중 국

수도관 파열돼 분출한 온수에 달려든 주민들... 계란 삶고

수도관 파열로 분출하는 온수에 계란을 삶는



주민들이 중국의 한 마을에서 포착됐다. 중국 환구시보 등 외신들에 따르면 최근 허난(河南) 성 정저우(鄭州) 시의 한 마을에서 수도관이 터져 도로 위로 온수가 뿜어져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 중 손으로 수온을 체크한 뒤 계란을 삶는 남성이 포착됐다. 해당 수도관도 중앙난방 시행에 따라 지난 1950년대에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



유럽연합

AI 확산...헝가리 등 6개국 발생 공식 보고

유럽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 11월부터 확산되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따르면 독일과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스위스 정부가 야생 조류에서 변종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공식 보고했으며 헝가리에서는 남동부의 한 칠면조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뒤 사육 중이던 9천 마리를 도살 처분했다. 폴란드는 독일 국경과 접한 곳에 서식하는 오리, 갈매기에서 아시아 계열의 'H5N8'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유럽 내에서 AI가 발생했다고 보고한 국가는 모두 6개국으로 늘었다. 스위스에서도 독일과 접한 국경지대의 야

생 조류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스위스는 100마리 이상 가금류를 키우는 농장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징후가 있는지 상시 추적하도록 하는 등 예방 조치를 했다. 스위스는 또 내륙 호수에 서식하는 조류에서는 아직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제네바, 취리히 호수에 감시 구역을 설정해 확산 방지에 나섰다. 오스트리아는 포어아르베르크주의 가금류 농장에서 AI 의심 신고가 있었다. 독일 북부 슈레스비히홀스타인주에서는 야생 오리 58마리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크로아티아는 동부에 서식하는 야생 백조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에 AI 확산에 대비하도록 당부했다. 유럽에서는 2014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농장에서 가금류를 도살 처분한 사례가 있다. [연합뉴스]



칠레

도시예술페스티벌서 거대 계란 프라이 설치



칠레 산티아고에서 도시예술페스티벌인 '에초엔 카사(집에서 만든)'가 열린 가운데 도심에 거대 계란 프라이 미술 작품이 설치되어 큰 관심을 모았다. [로이터] **양계**